

## 西洋地圖에 나타나는 濟州島

崔 書 勉\*

서양지도에 있어서 제주도가 등장하는 것 중에 그 위치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것은 그 대부분이 해도이다.

하멜표류기가 1668년 출판됨으로써 제주도는 Quelpart라는 이름으로 서양 지도에서 구체적으로 표기된다.

※ 하멜은 1653년 8월에 제주도 남단에 표류하여 부서진 위도계로 측량한 바 제주도 남쪽이 북위 33도 32분으로 측량되었다.

1787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사이에 프랑스의 라페루즈 제독의 함대가 제주도 남동쪽을 탐사하면서 해안선을 수사하고 한라산의 높이를 약 6천 피트로 계산하였다.

※ 라페루즈 함대는 제주도 최남단을 동경 126도 35분 북위 33도 14분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수사한 제주도에는 동경을 126도 19분 북위를 33도 8분으로 기록하고 있다.

1797년 10월 27일과 28일에는 영국의 브로우튼 선단이 제주도의 북서쪽을 조사하고 남단을 동경 126도 20분, 북위는 33도 11분으로 측정하였다.

1810년에는 버니는 위의 두 성과를 평균화하여 동경 126도 24분 북위 3도 11분으로 하였다.

1805년 4월에 일본 연해를 조사한 쿠르젠스톤도 이에 따랐다.

1845년 6월 하순 제주도의 우도에 도착하여 측량을 한 벨처에 의해 제주도는 보다 정확한 해도로 기입되었다.

\* 국제한국연구원장

그는 사마랑호로 제주도는 물론 거문도까지도 한달에 걸쳐 조사 측량한 것이다.

이상은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해도에 등장하여 선박의 항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발자취를 간단히 추려본 것이다.

본고는 이런 역사의 선행하는 제주도에 관한 인식을 다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가 서양지도에 나타나는 시초에서 하멜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도란 어떤 지역이나 섬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측량은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이 인식만 하는 지도의 시대와 구체적으로 측량을 한 지도의 시대로 나누어진다. 제주도가 서양지도에 나타나는 발생과 경과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서양지도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배호 1561년의 세계지도이다.

이어서 1563년 루이스(L. Luiz)의 동인도해도

1568년 두라도(F.V. Dourado)의 지도

1589년 마르티네스(J. Martines)의 동인도해양도

1591년 마르티네스(J. Martines)의 동인도해양인

1593년 유다에스(D. Judaeis)의 중국지도

1594년 프란시우스(P. Plancias)의 세계지도

1595년 테이세이라(L. Iteixeira)의 중국지도

1596년 린스호텐(H.V. Linschoten)의 동인도지도

1598년 랑그렌(A. Langien)의 지도

1598년 아피아너스(P. Apianus)의 지도

1599년 기스벌쓰(E. Gisbertsy)의 아세아지도

1613년 에레지악(M.D. Eredia)의 지도

1618년 트리크(N. Trigautt)의 중국지도

1623년 게릿츠(H. Geritsz)의 중국지도

1625년 프카스(S. Purckas)의 중국지도

1648년 블라우(J. Blaeu)의 세계지도

- 1650년 비셔(J. Visscher)의 세계지도
- 1652년 상송(N. Sanson)의 중국지도
- 1653년 보임(M. Boym)의 중국지도
- 1655년 오르테리우스(A. Orterius)의 중 지도
- 1655년 마르티니(M. Martini)의 중국지도
- 1655년 말티니(M. Martini)의 중국지도
- 1656년 상송(N. Sanson)의 중국지도
- 1661년 호이에(V. Hooye)의 세계지도
- 1664년 테브노(D. Thevenot)의 중국지도
- 1665년 뉴호프(J. Nienhoff)의 동인도지도
- 1667년 기르테(A. Kirche)의 중국지도
- 1667년 상송(N. Sanson)의 아세아지도
- 1683년 비늘라(D. Vigiela)의 라타리아지도
- 1735년 듀할드(J. Duhalde)의 중국지도(최초의 한국 단독지도 포함)으로 계속된다.

듀할드의 중국지도는 청에 가 있던 양빌(J.B. Anville) 등 천주교 선교사들의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 지도를 목표로 10년에 걸쳐 엮어진 황여전람도로서 프랑스에서 출판된 것이다.

이 지도작성에 참여했던 레지스(Regis)신부가 한국의 지리(Observations Geographiques sur le Royaume de Coree)라는 보고문을 써 첨부되어 있다.

이는 1737년 헤이그에서 다시 출판되었다(물론 제주도는 Quelpart로 뚜렷이 나타난다).

크라프로드(Klapreth), 지볼트(V. Sievold)에로 이어지는 한국지도의 선조적 역할을 한다.

이상 주로 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는 동안의 서양지도에 나타나는 한국지도는 한국에 관한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역할보다는 한국이 있다는 인식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갖가지 양상의 형태를 갖게 된다.

때로는 원형 등 여러형의 섬이 되고 유방형의 반도(벨호, 린스로텐)가 되

어 한국은 도서설과 반도설의 두가지 서로 다른형의 병존하고 있었다.

한국에 관한 표기도 때로는 Conrai 때로는 Chosiao 또는 두 이름이 같이 되어 있을만큼 정확치 못했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제주도는 어떻게 표시돼 있을까를 살펴볼 때 큰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제주도는 서양지도에 있어서의 한국의 탄생과 거의 때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란 미지의 나라의 존재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서양지도에 나타나는 한국지도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비중이 놀라면서 더 한층 놀라운 것은 제주도가 Quelpart나 Chejudo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Ladoris 또는 Dos Lladrois, 때로는 Ladrons 혹은 Ladrones로 표기돼 있는 것이다.

이는 나라에 따라 철자는 다소 다르지만 盜賊島란 뜻이다.

1563년의 루이즈(L. Luig)

1568년의 듀라도(V. Dourado)

1571년의 듀라도(V. Dourado)

1573년의 듀라도(V. Dourado)

1593년의 유다에스(D. Judaeis)

1595년의 린스호텐(V. Linschoten)

1598년의 돈에쓰(C. Doetsy)

1599년의 기스벌쓰(Giyshertsz)의 지도들은 제주도를 도적도로 표기하고 있다.

제주도가 어째서 도적도로 표기돼 있는가에 대하여 아직 믿을만한 연구는 없다. 오직 일본인 서양지도 연구자들이 단편적 보고는 있으나 아직 정설로 믿을만한 것은 못된다.

다음으로 제주도는 한시기 Fungma라는 이름으로 표기된다.

제주도는 18세기부터 Quelpart 혹은 Kiea Cheu로 표기되었다가 오늘과 같은 Cheju 혹은 Quelpart로 정착된다.

- 1) 도적도라는 이름은 왜 생겼는가.
- 2) Fungma라는 이름은 왜 생겼는가.
- 3) Kiecheu란 무슨 유래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試論이 제작되기를 기원하면서 소견을 소개하고자 한다.